

환경산업 육성 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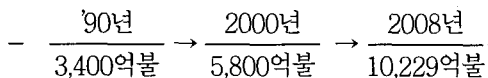
환경부는 한국의 환경산업이 규모의 영세성, 기술수준 저조, 연구개발 투자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환경산업을 중점 육성키로 했다. 환경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종 유망산업으로서 고도의 기술과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선진국형 산업이다. 화학, 우주·항공산업과 함께 21세기에는 세계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 국내 환경질의 개선은 물론 WTO 체제하의 환경시장 개방 확대와 선진국의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무역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환경산업을 21세기 수출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.

< 편집부 >

I. 국내·외 환경산업시장 규모 및 기술 현황

1. 환경산업시장 규모

- 각국의 환경규제 강화 및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환경의식 제고로 향후 10~15년간 세계 환경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됨



- 미국, 일본, 독일 등 환경선진국이 세계 환경시장의 80%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,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0.09% (2000년 기준)에 불과

※ 미국 1,655억불, 일본 653억불, 독일 364억불, 우리나라 34억불('94년 세계환경시장 규모 4,082억불)

- 세계 10대 환경선진국의 평균 GDP 대비 환경산업시장 규모는 2.45%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1.18%임

2. 환경기술 수준

- 미국, 일본 등 선진국은 '90년대부터 전체 환경기술투자의 50~80%를 청정생산·지구환경대책

등 첨단기술분야에 투자하고 있음

-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적인 환경기술의 평균 수준은 선진국의 30~40%에 불과하고 사후처리기술 개발에 치중하고 있음
- 특히 청정생산, 지구환경대책, 생태계복원 등의 첨단 환경기술수준은 초보적인 단계이며 이에 대한 투자는 전체 환경기술투자의 26%에 불과함

II. 환경산업 육성방안

중점추진과제

- ◎ 환경산업·기술 관리체계의 효율화
- ◎ 환경기술 개발 및 보급 촉진
- ◎ 국내 환경시장의 수요 창출
- ◎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

1. 환경산업·기술 관리체계의 효율화

- ▶ 환경산업·기술 통합관리체계 구축
-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범정부적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수립·시행

- [국가과학기술위원회]의 심의를 거쳐 국가차원의「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」을 수립하고, 동 계획에 따라 부처별로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 (2000. 2 : [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]에 관련규정 반영)
- 환경산업 육성방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통합적인 관리·지원체계 구축
 - 관계부처(재경부, 과기부, 산자부, 환경부, 건교부, 해양수산부, 중기청 등) 공동으로 환경산업 육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차원의 [환경산업 육성전략] 수립·추진 필요

▶ **환경산업 업종의 합리적 조정**

- 세분화되어 있는 환경산업 업종의 통폐합 등을 통해 오염물질 사후처리에서 오염원별 기초조사, 설계·시공, 운영·관리 등 전과정을 총괄 관리하는 Full-Service체제로의 전문화 유도
 - 환경기술 및 환경경영의 평가, 환경현황 및 환경영향 조사, 환경자료 조사·통계·분석, 환경분쟁 해결 등 환경컨설팅업의 중점 육성
- 중장기적으로 환경산업의 전문성, 다양성, 중요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환경산업 신설 방안 검토

▶ **유망 환경벤처기업의 육성(Eco-Dream Project) 추진**

- 우수 환경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환경 전문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
 - 벤처 관련단체 조직화 및 지원, 각종 정보인프라 제공,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, 기업·기술 홍보의 대행 등

2. 환경기술 개발 및 보급 촉진

▶ **환경산업·기술정보망 구축·운영**

- 국내·외 유관 정보망과 연계한 [국가환경산업·기술정보망] 구축으로 최신의 실용 정보 제공
 - Web-Hosting사업에 의한 중소환경업체 home page 개설지원, 유희환경설비 및 환경기술인력

알선, 사이버 컨설팅, 사이버 환경기술 복덕방 운영 등

▶ **신기술 수요창출 및 신기술 사용 활성화**

- 환경기초시설의 설계·운영관리 최적화를 위한 최적설계제도(VE) 도입·시행
- 현장 시공실적이 없는 환경신기술을 대상으로 성공 후 대가를 지불하는 성공불제(成功拂制)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 및 제도화 방안 강구
- 기도입된 신기술사용장려금 지급제도 및 환경신기술 신뢰도 제고를 위한 환경기술평가제도 활성화

3. 국내 환경시장의 수요 창출

▶ **환경친화적인 생산·소비체계 구축**

- 환경마크 인증상품 우선구매·사용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및 정부 조달 구매 확대
- 일반 소비자의 환경상품 사용 확대를 위하여 제품의 환경영향 정도를 수치화하여 표시하는「환경성적표지제도」도입·운영
- 친환경적 기업경영체제 유도를 위한 [기업의 환경성과 평가 체계]를 개발하여 금융기관의 기업 신용평가 및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 등에 활용

▶ **사전예방적·지울적 환경관리를 위한 [환경홈닥터제] 도입**

- 환경오염 유발업체 및 우려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전문가를 홈닥터로 위촉하고 산·학·연·관 관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사전 진단 실시 및 자율적 개선사업 유도

▶ **환경기초시설의 민영화 확대**

- 하수종말처리시설 위주로 진행중인 민자유치를 폐기물 처리시설(소각장, 매립장),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, 매립가스 자원화시설 등의 분야로 확대
 - 특히 지자체에 민영화 유인을 주기 위해 민자유치 추진 지자체에 대해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우선 지원

-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전반에 대해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·적용

※ 상하수도시설 이외 환경기초시설 분야로는 최초로 99년 인도네시아 병원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EDCF(4000만불) 지원 승인

4.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

- 환경산업관련 대외 홍보를 강화하고 해외 환경시장 및 기술동향 등의 정보를 수집·전파
- 우리나라 환경산업체가 동남아등 개도국에 진출시 대외경제협력기금(Economic development and Cooperation Fund, EDCF) 등의 재정자금 지원

- 국내 기업의 진출가능성이 높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차원의 환경산업 협력체계 구축
- 아시아 지역 국가간 협회, 연구원 등 민간부문의 네트워크 구축

두산환경센터 이전안내

두산그룹은 세계 최우수 환경선도기업을 추구한다는 장기적 목표 아래 환경강령을 제정하고 '두산환경센터'를 발족, 운영하는 등 기업 생존의 사활을 걸고 환경친화적 기업 이미지 구축에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. 그러한 투자와 노력의 결과로 설립된 두산환경센터는 지난 97년 개원 이후 수십 여 건의 환경 관련 기술특허를 취득하고 기업체 생산현장의 환경감시체계를 국제신용평가 체계와 결합시킨 '환경신뢰도 평가시스템'을 개발, 도입하는 등 두산그룹의 환경경영 전략 구축 및 환경기술 개발의 중심에서 그 역할을 수행해왔다. 두산그룹 각 사업장의 환경기술·경영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해 온 두산환경센터가 두산그룹에서 분사, 'Ecobiznet'이라는 상호로 지난달 15일 독립법인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였다. 사업분야는 환경경영전략수립 및 체제구축컨설팅, 기업환경진단 및 평가, 환경리스크평가, 환경기술부분 등으로 크게 나뉘어진다.

두산환경센터의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.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상 호	두산환경센터	(주)두산에코비즈넷 Doosan Ecobiznet
주 소	서울시 중구 을지로6가 18-12 두산타워 31층	서울시 강동구 길동 52-2
전화번호	(02) 3398-1180~1183	(02) 488-5028~29, (02) 488-4368~69
팩 스	(02) 3398-1185	(02) 488-4341